

Attitude_성도들의 삶 IX.

결정했으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라.

1. 하나님의 뜻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높고, 크고 깊다. 완전하다. 신앙의 성숙도는 내 뜻을 포기하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내 뜻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자아성찰적 비워냄이 아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을 말한다. 비워냄에 목적이 있지 않다. 채움에 목적이 있다. 채움이란 믿음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인격적인 동의를 말한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견줄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다. 바로 이 단계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활태도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내 뜻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사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확신'을 말한다.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선명해져서 분명해지는 단계를 말한다. 그래서 진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에 갈등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단계가 어려운 것이다.

2.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성도의 태도

(1)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

고민이 많은 시간이다. 이 고민을 통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렬된다. 그래서 분명해 지는 것이다. 내 이성과 감정에 부합된 어떤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이 단계는 신중해야 한다. 설불리 결정하면 안 된다. (여러생각들이 교차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고민이 깊어진다. 그런데 이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벼움을 경계하라)

(2)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신다. 인내의 시간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를 경작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과 환경속에서도 선택하고 좋다는 사실을 마음의 태도로 가져야 한다.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임계점'의 원리를 배워야 한다. 임계점은 '기체'와 '액체'의 경계가 없어지는 순간을 말한다.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는다. 반드시 100도가 되어야 끓는다. 1도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 99도의 노력이 1도차에 의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나아만 장군, 여리고성

나아만 장군의 기적, 여리고 성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인내'의 시간을 통해 도달한 임계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과정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물을 채울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났다.

* 바벨론의 임계점

[요한계시록 18:2-4]

2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태복음 24:12-13]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임계점을 보여준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임한다. 놀라운 사실은 임계점의 순간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4절)” 이 말은 그 순간까지 성도들은 타락한 바벨론 성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성도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제 나오라는 음성에 성도들은 움직인다.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선불리 우리의 환경을 움직이려고 한다.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움직임은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들으려고 하라. 들을 때 보인다. 알게된다. 그 순간이 바로 지혜의 공간이 열리는 때이다. 하나님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듣는태도’가 바로 순종이다.

(3)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이 남는다.

신랑을 향한 고귀한 신부의 사랑이다. 사랑만이 인내하게 할 수 있다. 내 노력과 의지로 절대 버틸 수 없다. 참을 수 있는 힘은 단 하나 ‘사랑’이다. 사랑은 오래참게 한다. 이 순결한 사랑이 남는 순간은, 내 뜻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찬 순간이다. 담대해지는 순간이다. 갈등이 없어지는 자유한 순간이며, 절대적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다.

3. 결정한 후에 가져야 할 태도

(1) 결정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움직여라.

결정하고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믿음의 문제이다. 이런 사람에게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소신’이 있어야 한다.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단계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안에 결정되어진 약속이기에 움직일 수 있다.

(2) 움직였다면 성령님의 음성이 있기 전까지 함부로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속도를 붙여 달려라. (최선을 다하는 단계이다)

(3) 결정하고 난 후 붙잡아야 할 마음은 딱 하나 ‘간절함’이다.

간절함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다. 간절함은 내 힘의 한계를 알 때 생겨난다. 여러고를 보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간절했다. 그 때 하늘문은 열린다. 그러나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다. 이유는 하나이다. 교만이다. 불순종이다.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기에 간절함이 없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간절해야 한다. 그래야 움직일 수 있다.

(4) 소신있게 결정했기에 ‘후회함’이 없다.

[로마서 11: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God's gifts and his call are irrevocable.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어말씀처럼 ‘취소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폐기할 수 없다’ (irrevocable).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후회한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 분의 열정을 이해했다면 최선을 다하라.

[시편 121:1-4]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